

# 금호타이어, “프리미엄 SUV 타이어 시장 선도”

### ‘2026 멤버스데이’서 신제품 ‘크루젠 GT Pro’ 공개 정일택 “올해 매출 목표, 역대 최대 5조1000억 실현” 함평 신공장 건설에 6609억원 투입...“2028년 완공”

금호타이어가 올해 매출 목표를 역대 최대인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금호타이어는 프리미엄 OE(신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 등으로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남 함평과 유럽공장 건설을 통한 한국-유럽-북미를 잇는 글로벌 생산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일택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최근 ‘2026 금호 멤버스데이’에서 주요 경영 전략과 올해 목표를 공개했다.

금호타이어는 ‘모두 하나되어, 또 한번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2026년 경영 방침을 선포했다. 또 신제품 ‘크루젠 GT Pro’ 운영 전략 발표 및 우수 유통망 시상 등을 진행하며 대리점주들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이번에 출시된 ‘크루젠 GT Pro’는 부드러운 주행성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프리미엄 컴포트 SUV 타이어로, 전 구경 UTQG 트레이드웨어 800 기록 및 에너지 소비효율등급(RR, 회전저항) 2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해당 제품은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53개의 폭넓은 사이즈를 공급하는 동시에 전 기차의 주요 성능인 소음, 내마모 성능을 만족시키는 EV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전 기차까지 아우르는 전 구경 라인업(EV Compatible)을 확보하고 있다.

정일택 대표는 “크루젠 GT Pro는 금호타이어가 지향하는 엄격한 품질 기준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상징하는 모델”이라고 신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금호타이어는 연구개발과 품질 혁신을 지속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호 멤버스데이’는 금호타이어의 전국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매년 연간 ‘영업 & 마케팅 정책’을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금호타이어의 SUV 전용 브랜드 ‘크루젠’의 신제품 ‘크루젠 GT Pro’ 출시를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영업총괄 임승빈 부사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크루젠 GT Pro 출시를 기념해 5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4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헬리닉스 더블백, 패스트캡트 윈터치렌트 등의 사은품(1중



금호타이어가 최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6 금호 멤버스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이 신제품 ‘크루젠 GT Pro’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선택)을 증정한다.

또 6월 30일까지 제품 구매 후기를 등록한 고객 중 200여명을 선정해 순금코인 및 커피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타이프로 홈페이지(www.tirepro.co.kr) 및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22년 이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공장 화재로 공급 차질을 겪었음에도 창사 이래 최대인 4조7000억원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전남 함평에 신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함평 신공장 1단계 건설 사업에 총 6609억원을 투입해 202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창고동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4월 타이어 제조 핵심시설인 정련동과 압연

동 착공을 앞두고 있다.

완공 후 함평 신공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자동화 설비와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춘 연간 530만본 규모의 타이어 생산기지로 운영된다.

또 관련 소재·부품기업의 연쇄 투자를 촉진해 전남 서부권을 대표하는 핵심 앵커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금타. 토크콘서트 개최 심리 치유와 조직 결속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임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방송인 김재동을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지난해 광주공장 화재 이후 복구와 안정화에 심 없이 달려온 임직원들의 심리적 피로감을 완화하고 구성원들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해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고, 회사 구성원 보호 및 회복 중심 조직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방송인 김재동은 특유의 입담으로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냄과 동시에 함께 슬픔을 털어내고 기쁨을 더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삶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겪었고, 함께 회복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한전, 파라과이 전력망 구축 수주...중남미 시장 공략

###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후속 투자·기자재 동반진출 기대

한국전력공사가 파라과이 국가 전력망 구축의 밑그림을 맡으며 중남미 전력시장 진출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국전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주한 ‘파라과이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파라과이 전력망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국가 기간망 보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한다.

또 전력 분야 관계자 초청 연수와 연계 사업 기회까지 포함해 단순 자문을 넘어 제도·인력·사업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까다.



한국전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주한 ‘파라과이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컨설팅은 한전 전력연구원 엔지니어링 기업(주)유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한전은 앞서 지난 17일 파라과이 전력청(ANDE)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수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공유했으며, 실무회의를 통해 계통 운영 기술과 구축 경험을 전수했다.

파라과이 전력청은 한전의 계통 계획 및 운영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번 사업이 중장기 전력망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중남미 시장 확대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술 컨설팅을 넘어 후속 사업 발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전은 이를 기반으로 신기술 사업화와 연계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중남미 전력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자재 업체들의 동반 진출도 추진된다. 한전은 현지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해 국내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계통 기술력이 파라과이 전력 인프라 개선과 신뢰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송변전 투자사업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광주경총,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초청 금요포럼

###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매력이 경쟁력’ 주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오는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을 초청해 ‘매력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제1715회 금요초점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개인과 조직,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조건을 ‘매력’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회장은 매력이란 무엇인가, 인생 100세 시대 대응 전략, 매력적인 인생 설계, 꿈 실현의 3가지 원동력, 부부와 삶의 관계, 삶을 규정하는 3요소, 농업과 농촌의



변화, 농정 대전환 방향, 건강한 사회의 조건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제23대 농협중앙회장을 지냈다. 1978년 농협에 입사한 이후 남평농협 전무와 제13·14·15대 조합장을 거쳤으며 농협중앙회 이사, NH무역 대표이사, 농협양곡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전남대학교 겸임교수와 한국벤처농업대학 교수, 국제협동조

합농업기구 회장,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제는 단순한 실력이나 스펙만으로 선택받기 어려운 시대”라며 “사람과 조직, 지역이 함께하고 싶어지는 힘, 즉 매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참여 및 문의는 광주경총 회원사업부(062-608-9942)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광주경총 금요초점포럼은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국내 최장수 경제 포럼으로, 현재 907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 기업인뿐 아니라 노사민정 관계자와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 경영·경제 이슈와 시대 변화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